

제5회 김현문학패 수상자 발표

시 / 김경후



소설 / 박솔미



독립 문학 공간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이 제5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2009년 등단해 특유의 ‘문학적 모험’을 감행해온 박솔미 소설가와, 1998년 등단해 초현실주의적 언어로 삶의 내부를 탐색해온 김경후 시인이 그 주인공. 김현문학패 수여식은 2019년 9월 27일(금)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문학패와 창작지원금(시 1천만 원, 소설 1천5백만 원)이 주어진다.

김경후—허무·무모(無謀)와의 끝없는 싸움을 동반한 암중모색과 새로운 시적 가능성

김경후 시인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학교 문예창작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8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그날 말이 돌아오지 않았다』 『열두 겹의 자정』 『오르간, 파이프, 선인장』 『어느 새벽, 나는 리어왕이었지』를 펴냈다.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명지대 문창과 박사과정 수료.

—삶-이야기의 잠재태와 현실태가 공존하는 기묘한 서사의 시공을 구축

박솔미 소설가 1985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경영학을 전공했다. 2009년 『자음과모음』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여, 장편소설 『을』 『백 행을 쓰고 싶다』 『도시의 시간』 『머리부터 천천히』와 단편소설집 『그럼 무얼 부르지』 『사랑하는 개』 그리고 중편소설 『인터내셔널의 밤』을 펴냈다. 문지문학상·김승옥문학상을 수상했다.

* 인물 이미지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제5회 김현문학패 선정 과정

2015년, 시장 논리에 매몰된 문학의 독립 활동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문학실험실(대표 이인성)의 설립과 함께, 한국 문학비평을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새로운 문학적 전망을 제시했던 고(故) 김현의 25주기를 기념하여 제정된 ‘김현문학패’는 그 제정 목적과 시행 원칙(첨부한 ‘김현문학패 소개’ 참조)에 따라 제1회 수상자로 한유주 소설가와 성기완 시인을, 제2회 수상자로 김태용 소설가와 이제니 시인을, 3회 수상자로 서준환 소설가와 강정 시인을, 제4회 수상자로 백민석 소설가와 신영배 시인을 선정한 바 있다.

김현문학패 시행 5년차를 맞은 금년 1월, 본 선정위원회(김정환, 김태환, 김형중, 성민엽, 이인성)는 규정에 따라, 1) 2019년 현재 김현의 타계 나이인 만 48세(1971년생) 이하로서, 2) 등단 이후 해당 장르에서 2권 이상의 저서를 펴냈으며, 3) 그 마지막 저서가 지난 3년(2016~2018년) 사이에 나온 시인·소설가들의 명단과 그들의 출간 도서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김현과 문학실험실의 문학관을 잘 반영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여 명의 문인에게 비공개로 전제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채택하였다.

이후 2월부터 6월까지 압축된 후보자들의 전 작품을 검토하며 다각도의 토론을 거친 본 선정위원회는, 이제 김현 29주기(6월 27일)에 즈음하여 제5회 수상자로 김경후 시인과 박솔피 소설가를 결정·발표하게 되었다.

제5회 김현문학패 선정의 말

김경후—허무·무모(無謀)와의 끝없는 싸움을 동반한 암중모색과 새로운 시적 가능성

이승과 저승 사이 어딘가에 갇혀 있는 듯한 극한적 단절과 절망의 상황을 해독이 거의 불가능한 초현실주의적 언어로 펼쳐 보여주는 데서 시작한 김경후의 시 세계는, 그럼에도 그 공간에 자멸적으로 함몰되지 않고 그 너머의 다른 공간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가능성을 찾아 언어의 은밀한 숨결과 울림을 일구어보려는 처절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허무·무모(無謀)와의 끝없는 싸움을 동반한 이 암중모색이 새로운 시적 가능성마저 열어나가는 과정은 실로 놀랍다. 우리는 다양한 문학적 실험을 동반한 이 끈질긴 탐색 과정 자체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솔피—삶-이야기의 잠재태와 현실태가 공존하는 기묘한 서사의 시공을 구축

‘언어보다는 서사’, ‘실험보다는 일상’ 쪽으로 경도되고 있는 작금의 한국 소설 경향에 비추어볼 때, 박솔피는 이례적으로 소설 장르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문학적 모험’을 추구하고 유지해 온 젊은 작가이다. 구어와 문어가 중첩되며 빚어내는 독특한 리듬과 함께, 모종의 혼돈을 유도하는 듯한 이 작가의 서술 방식은 삶-이야기의 잠재태와 현실태가 공존하는 기묘한 서사의 시공을 구축하고 있다. 그 속에서 독자는 전혀 새로운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바, 그 시선이 구체적인 사회적 모순과의 긴장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도 이 작가의 독특한 능력으로 평가된다.

선정위원 _____ 김정환 (시인)

김형중 (문학평론가, 조선대학교 국문과 교수)

김태환 (문학평론가, 서울대학교 독문과 교수)

성민엽 (문학평론가, 서울대학교 중문과 교수)

이인성 (소설가, 문학실험실 대표)

김현문학패 소개

제정 목적과 시행 원칙

문학실험실은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낸 비평가 고 김현의 25주기(2015년 6월 27일)를 맞아, 그를 되새기고 기리며, 그의 이름으로 한국문학의 진정한 질적 진화를 위해 '뜨거운 상징'(김현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문학상을 제정·시행키로 결정하였다. '김현문학패文學牌'는 문학상으로서의 분명한 개성을 지향한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이 상을 통해 한국문학의 한 조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문학적 특성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해나갈 것이다(패에는 패거리라는 뜻도 담겨 있다). 우선, 이 문학패는 김현의 미래지향적 문학관에 근거를 두고 그가 일관되게 옹호한, 한국문학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실험정신을 기본적인 선정 지침으로 삼는다. 그리고 일정한 선정 조건 아래(아래 참조), 한 해 동안 추수된 단일 작품이나 저서를 대상으로 한 '작품상'이 아니라, 한 작가의 전 작품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작가상'의 성격을 띤다.

시행 규정

본 '김현문학패'는 위의 목적에 따라 매년 시인·소설가 각 1명씩을 선정하여 기념 문학패와 창작지원금(시 1,000만 원/소설 1,500만 원)을 수여한다. 단, 그 수여 대상자는, (1) 선정 연도를 기준으로 만 48세(김현의 타계 나이) 이하이며, (2) 등단 후 5년 이상 활동하면서 해당 장르의 저서를 2권 이상 출간하였고, (3) 그중 가장 최근의 저서를 선정 연도 전해 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출간한 시인·소설가로 한정한다. 선정위원회는 위원들을 장르별로 분리하지 않고 선정 과정을 합동 토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수여 후보 자격이 3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명단이나 토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최종 선정자와 선정 이유만을 발표한다.

시행 절차

매년 1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시인·소설가의 명단과 출간 저서 목록을 작성하여 일정 수의 추천위원들에게 복수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선정위원회가 이를 참조하여 최종 후보자들을 압축한다. 2월부터 6월까지 선정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전 작품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뒤, 6월 말 김현 기일에 즈음하여 최종 선정자를 결정 발표한다. 그리고 시상식은 9월 말에 시행한다.

역대 수상자

제1회 (2015)	시 성기완	소설 한유주
제2회 (2016)	시 이제니	소설 김태용
제3회 (2017)	시 강정	소설 서준환
제4회 (2018)	시 신영배	소설 백민석
제5회 (2019)	시 김경후	소설 박솔미

1942~1990



1942년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성장한 김현은 서울대 문리대 불문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에 뜻을 두기 시작했다. 1962년 『자유문학』에 「나르시스 시론」을 발표하며 등단한 그는 곧 김승옥·최하림 등과 『산문시대』 동인을 결성하게 되고, 그의 열정적 동인 활동은 이후 『사계』, 『68문학』 등을 거쳐, 1970년에 김병익·김치수·김주연과 함께 계간 『문학과 지성』을 창간하고 1975년에 문학과지성사를 창립하는 문학사적 결실로 맺어진다.

1971년 서울대 교양과정부 전임강사로 취임한 후 서울대 인문대 불문과로 옮겨 재직하면서, 그는 프랑스 문학 연구자이자 한국 문학 비평가로서 더욱 왕성한 활동량과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한국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사 기술의 새 바람을 몰고 온 『한국 문학사』(김윤식 공저)와 『한국 문학의 위상』을 비롯하여, 『상상력과 인간』, 『사회와 윤리』로부터 『문학과 유토피아』,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 『책읽기의 괴로움』 등을 통과해 마지막 『말들의 풍경』에 이르는 일련의 평론집들이 그의 놀라운 공감 능력과 정치한 분석·해석을 과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문학 영역에서는 『프랑스 비평사』를 시발점으로 바슐라르, 제네바학파, 르네 지라르, 미셸 푸코 등의 비평 세계와 방법론을 추적하는 저작 연구서들과 편저들이 그의 넓은 문학적 관심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40대 중반의 나이에 발병한 간염이 서서히 그의 몸을 허물어나갔지만, 그의 문학적 열정과 사명감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계속되는 집필·연구 활동 속에 간염은 기어이 간암으로 악화되었고 1990년, 때 이른 그의 죽음을 몰고 왔다. 향년 48세.